



선전 다짐

2008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태극기를 앞세운 체조 양태영 선수 등 한국선수단 본진이 교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하고 있다.

“남북 공동 입장 끝까지 노력”

한국 선수단 베이징 입성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10강 수성에 나선 태극전사들이 마침내 격전의 땅에 들어왔다.

이연택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과 김정행 선수단장, 이예리사 총감독 등 본부 임원과 체조, 역도, 사이클, 조정 등 4개 종목 선수와 임원 등 65명으로 구성된 한국선수단 본진은 1일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851편을 출국해 중국 현지시간인 10시35분에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이연택 KOC 위원장은 도착 일성으로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아시아 2위에 복귀하며 세계 10위를 반드시 지키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개회식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행 선수단장은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무더위 등 힘든 상황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25개 종목에 걸쳐 임원 122명과 남녀 선수 267명 등 총 389명을 파견하지만 베이징과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해 본진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각 종목별로 편한 날짜를 골라 출국한다.

2일에는 사격과 펜싱, 여자농구 선수들이 들어오고 3일에는 박태환을 비롯한 수영 대표팀과 세계 최강인 양궁, 축구대표팀 등이 도착할 예정인 사격과 펜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우두 공항에서 간단한 입국 절차를 밟으며 ID카드를 수령한 한국선수단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선수촌으로 이동했다.

올림픽선수촌 지정숙소인 D1동에 여장을 풀 한국선수단은 곧바로 각 종목별 현지 적응훈련에 들어갔다.

한국은 5일 오후 2시 선수촌 앞 국가광장에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그레나다 등과 함께 합동 입촌식을 가질 계획이다.

또 8일 저녁 8시 메인스타디움인 ‘휘저티위장’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는 전체 205개국 중 177번째로 입장하게 된다.

주최국 중국은 ‘간체자(簡體字)’로 국명 첫 글자 획수에 따라 입장 순서를 결정했으며 북한은 한국에 이어 178번째로 입장한다.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선수단은 2일 오전 9시45분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한은 유도과 탁구, 역도, 레슬링, 복싱, 사격, 체조, 마라톤, 여자축구, 양궁, 다이빙 및 수중체조 등 11개 종목에 선수 63명과 경기.분부임원 71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4명을 이번 대회에 파견한다. /연합뉴스

메달 기대주 ⑬ 카누 이순자

근력·지구력 장점 한국 카누계 보물

베이징올림픽 여성 카약 1인승(K-1) 500m 종목에 출전하는 이순자(30·전북체육회)는 한국 카누계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체전 K-1 500m 종목에서 8연패를 하며 국내에서는 무적 행진을 계속 중이고 한국 기록도 지금까지 모두 3차례나 수립한 바 있다.

국제대회에서도 1997 아시아선수권 카약 2인승(K-2) 500m 2위, 1999 아시아선수권 K-2 500m 2위, 2002 아시아선수권 K-1 500m 1위, 2003 동아시아선수권 K-1 500m 3위, 2006 도하아시아게임 K-2 500m 동메달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2007 아시아선수권 K-2 1천m 2위 등 화려하다.

그러나 이순자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올림픽 출전 과정 때문이다.

이순자는 올해 5월 일본 고마쓰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예선 여자부 K-1 500m에서 1분59초53으로 2위를 기록해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이순자는 당시 2위를 차지했지만 1위를 차지한 중국 선수가 개최국 자격으로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강력한 라이벌인 일본 카누의 간판 기타모토 시노부미를 제치고 따낸 올림픽 티켓이라고 기쁨은 더했다.

무엇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와일드카드 자격으로만 올림픽에 출전해 온 한국 카누가 이순자처럼 예선을 거쳐 자격으로 출전권을 따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 그만큼 한국 카누의 실력이 이제는 세계 무대와의 격차를 어느 정



도 줄었다는 반증이었다.

이순자의 최대 장점은 근력과 지구력.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과 온갖 집안 허드렛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근력을 길렀고 중학교 시절에는 육상 100m와 1천200m를 뛰면서 지구력도 키웠다. 이런 기초체력이 바탕이 돼 전북체육회에 입학해서야 처음 접한 카누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고 급기야 전북체고 2학년 때 카누 국가대표 삼비군에 발탁되면서 한국 카누의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순자는 현재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느린 스타트를 보완하는데 훈련의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강 카누경기장에서 박기정 감독과 이 집에 포커스를 두고 막바지 훈련 중인 이순자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는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한국 기록인 1분55초36를 경신하는 것은 물론 9명이 겨루는 결선 진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순자는 14일 베이징으로 출국, 19일 여성 카약 1인승(K-1) 500m 예선전에 나선다.



올림픽 소식

‘세리 키즈’ 신났다

신지애·오지영 6언더파 공동 2위

브리티시女오픈 첫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주역으로 등장한 ‘박세리 키즈’가 베이징대회 연속 우승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1일(한국시간) 영국 버크셔 서니데일골프장(파72·6천408야드)에서 막을 올린 시즌 네번째 베이징대회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신지애(20·하이마트)와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이 6언더파 66타를 때려 선두 플러잉스타(미국·67타)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나섰다.

US여자오픈 챔피언 박인비(20·SK텔레콤)와 동갑내기 친구인 신지애와 오지영은 박세리 LPGA 투어에 화려하게 데뷔하던 1998

년 열살 꼬마였고 “나도 세리 언니처럼 골프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국내에서 ‘지존’으로 군림하며 틈틈이 미국, 일본여자프로골프, 그리고 호주까지 넘나들며 세계랭킹 10위에 올라 있는 신지애는 버디 8개를 뽑아냈고 스테이트팜클래식 우승자 오지영은 버디 9개를 끌어담았다.

신지애는 “경기에 앞서 내린 비로 페어웨이와 그린의 부드러워져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면서 “코스스가 아주 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오지영은 버디도 많았지만 보기 3개를 곁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2위 그룹에는 무려 7명이나 몰려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인창고 투수 김태훈, 고교야구 사상 첫 퍼펙트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 부경고와 16강전서

전국 규모의 고교 야구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퍼펙트 기록이 나왔다.

구리 인창고 3학년 투수 김태훈은 1일 인천 송의구장에서 열린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부경고와 16강전에서 타자 27명을 상대로 삼진 15개와 내야 땅볼 11개, 외야 플라이 1개로 막아내며 단 한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았다. 특히 김태훈은 2회 마지막 타자부터 4회 첫 타자까지 5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인창고는 김태훈의 퍼펙트 투구에 힘입어

부경고를 1-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퍼펙트 기록은 고교 야구대회 지역 예선에서는 1976년 당시 이길환(선린상고)이 상문고를 상대로 달성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4차례나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국 규모 대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야구협회의 설명이다.

퍼펙트 기록은 대학야구의 경우 1번, 실업야구에서는 5번 나온 것으로 야구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프로야구에서는 아직까지 퍼펙트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다.



2일(토)

- ▲2008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2 R(03 : 00·SBS스포츠·SBS골프)
▲2008 PGA 레전즈 리노타호 오픈 2R(07 : 30·SBS골프)
▲2008 프로축구 한일 올스타전(K리그 올스타 : J리그 올스타)(17 : 45·SBS스포츠)
▲2008 리코 브리티시 여자 오픈 3R(22 : 00·SBS골프)

3일(일)

- ▲2008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3 R(02 : 00·SBS스포츠·SBS골프)
▲2008 PGA 레전즈 리노타호 오픈 3R(07 : 30·SBS골프)
▲2008 베이징 올림픽 농구 평가전(미국 : 러시아)(15 : 50·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 주니치)(18 : 00·MBC ESPN)
▲2008 삼성파브 프로야구 올스타전(동군 : 서군)(18 : 00·KBS N SPORTS·SBS스포츠·XPORTS)
▲2008 리코 브리티시 여자 오픈 3R(22 : 00·SBS골프)

한·일 프로축구 올스타팀 자존심 전 ‘★들의 전쟁’

오늘 오후 6시 ‘조모컵 2008’ 격돌

역대 축구대표팀 한·일전 개인 최다 골(6골)을 자랑하는 사령탑이 일본축구의 심장부에서 K-리그 전사 18명과 함께 ‘제2의 도쿄대첩’을 준비한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K-리그 올스타팀은 2일 오후 6시 도쿄국립경기장(KBS N 생중계)에서 일본 J-리그 올스타팀과 ‘조모컵 2008’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두 나라 올스타들이 모여 처음으로 치르는 것으로 양국 프로축구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K-리그 차범근(수원) 감독은 역대 대표팀 한·일전에서 헤트트리를 포함, 총 6골을 터뜨린 대표적인 ‘일발 킬러’다.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K-리그 득점랭킹 1위 두두(성남·16골)를 비롯해 예두(수원·11골), 라몬치치(인천·10골) 등 용병 골잡이와 장남석(대구·9골)과 최성국(성남·7골)으로 대표되는 토종 골잡이들이 공격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오스왈도 올리베이라(가시마) 감독이 이끄는 J-리그 올스타팀에선 ‘허정무호’의 캡틴 김남일(빗셀 고베)이 K-리그 공격수들의 1차 저지선 역할을 맡고 북한대표팀의 공격수 정대세(가와사키)가 공격 선봉에서 나서는 게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일 올스타전에서 MVP로 선정된 선수는 상금 100만원(약 940만원)과 벤츠 승용차를 선물로 받는다.



전현직 IOC 위원장 도착

베이징올림픽 개막 D-7일인 1일 선수촌을 방문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사미란 치 전 위원장과 선수촌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마린보이’ 박태환 현지 적응 훈련 시작

○- ‘코리아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큰 꿈을 품고 3일 베이징으로 떠난다. 박태환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떠나는 대한항공 851편에 몸을 싣고 베이징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인상 대한수영연맹 경영 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다른 대표선수 15명과 동행한다. 훈련 과정에서 각 감독과 함께 프로그램을 짜고 영법 및 체력 분석에 지대한 도움을 준 체육과학연구원 송홍선 연구원이 아이디카드를 받지 못해 대표팀에서 빠진 것이 한가지 아쉬운 점이다. 목표는 물론 금메달이다.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자유형 400m에서 정상 자리를 지킨다는 다짐이다. 이 종목에서 최고 기록이 3분43초대이지만 세계 기록(3분40초08)을 넘어선다는 각오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3분40초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다.

개막일 임시 공휴일 지정 논란

○-중국 정부가 베이징(北京)올림픽 개막일 오는 8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저우(廣州)에서 발행되는 양성만보(羊城晚報)는 1일 한 네티즌 여론 조사결과를 근거로 중국 국민의 83%가 개막일을 반(半)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개막일을 반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베이징의 교통난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개막식은 일과 종이 아니라 저녁에 치러지는데다 오히려 휴일을 맞은 베이징 시민들이 시대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뿐 교통난 완화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